

가요에서의 ‘경쾌한’과 ‘감정적’ 감성의 가사 비교 연구

Study of Lyrics in Korean Popular Songs in emotions of cheerful and moody

권지연, 이승연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Kwon ji-yeon, Lee seung-yeon

Sangmyu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technology

I. 서론

1. 연구목적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대중음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중의 하나인 음악에서 가사의 역할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감정 중 유명한 감정 이론중의 하나인 폴 에크만의 기본 감정(Basic Emotion)중 -기쁨(Joy) 감성과 -슬픔(sadness) 감성을 가사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중음악의 가사 안에서 텍스트 사용이 음악의 감성표현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지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음악 추천 사이트 중 국내 유일의 음악전문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엠넷의 음악과 감성 부분을 선정하였다. 감성테마 중 ‘경쾌한’ 테마와 ‘감정적’ 테마에서 각각 200곡씩 모두 400곡을 선정하였는데, 여기서 기쁨 감성과 슬픔 감성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00곡 선곡 가사의 영어부분은 배제하였고, 사물이나 상황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배제하였다. 현재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미래, 추측, 강요, 권유, 이중부정 등의 표현들 또한 배제하여 분석하였다.

II. 본론

1. 연구방법

‘경쾌한’ 테마와 ‘감정적’ 테마를 각각 200곡씩 400곡을 선출하여 가사 추출, 조성, 템포, 발매 년도, 장르, 작사, 작곡을 세분화시켜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본 논문은 가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연구하였다. 가사 중 기본 형용사와 감정형용사 감정동사 감정명사를 추출하여 형용사

감성군으로, 사랑과 소망 중심의 네러티브 감성군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400곡의 가사 중 가장 기본적으로 쓰인 기본 형용사를 먼저 추출하였다.

그 중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감정 형용사, 감정 동사, 감정 명사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감정군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소망하는 단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현재의 이루어진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따로 분류하여 배제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경쾌한 테마와 감정적 테마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랑 단어는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사랑단어를 배제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②③④의 단어들을 포함한 경우와 스토리의 내용만으로 분석한 경우를 추출 분석하여 5가지 방법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2. 연구내용

전체 형용사에서는 좋다가 1위로 200곡 중 58곡에서 도출된다. 2위로 많다 3위로 아프다 등등의 형용사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추출된 형용사 중 감정 단어들은 총 213개가 도출된다. 이때의 감정단어는 아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써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포함하여 추출한다. 감정단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경쾌한 음악에서 감정 단어 순위

순위	감정 단어	곡 수
1	좋다	57
2	웃다	54
3	울다	40
4	행복하다	36
5	아프다	34
6	좋아하다	29
7	슬프다	24
8	힘들다	24
9	싫다	20
10	괜찮다	19

전체 형용사에서는 아프다가 1위로 200곡 중 112곡에서 도출된다. 2위로 슬프다 3위로 행복하다 등등의 형용사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추출된 형용사 중 감정 단어들은 총 126개가 도출된다. 이때의 감정단어는 아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써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포함하여 추출한다. 감정 단어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슬픈 음악에서 기본 형용사 순위

순위	전체 형용사	곡 수
1	아프다	112
2	슬프다	51
3	행복하다	41
4	힘들다	39
5	많다	34
6	좋다	32
7	미안하다	28
8	멀다	23
9	그립다	23
10	다르다	22

Ⅲ. 결론

경쾌한 음악과 감정적 음악의 공통점으로 각각의 감성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좋다 웃다 울다 행복하다 아프다 좋아하다 슬프다 힘들다 싫다 괜찮다 등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중 품사가 쓰여 이중표현

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차이점으로는 경쾌한 음악에서는 반하다, 끌리다, 달콤하다, 부끄럽다, 신나다 이런 단어들이 도출된 반면 감정적 음악에서는 서럽다. 미련, 시리다, 귀하다, 멍청하다, 모질다 이런 단어들이 도출된다. 이리므로 경쾌한 음악에서는 다양한 표현의 다양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반면 감정적 음악에서는 한정적으로 슬픈 감정을 극대화시킴이 나타난다.

■ 참고 문헌 ■

- [1]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 [2] 인간의 모든 감정, 최현석, 2011